

지구 공동체 시대, 예수 공동체 모습
Global Village Era, Jesus Community Model

손 성 목사
마이라 하우스 가정 수도원 대표

들어가는 글

1. 떼제 공동체 (1 편)
2. 떼제 공동체 (2 편)
3. 떼제 공동체 (3 편)
4. 떼 제 공동체 (4 편)
5. 떼제 공동체 (5 편)
6. Cluny 와 시토 수도원 공동체
7. 초교파 영성공동체들 (1 편-스위스, 이탈리아, 독일)
8. 초교파 영성공동체들 (2 편-스위스, 이탈리아, 독일)
9. 왜, 우리는 공동체로 사는 가? (마이라하우스)

들어가는 글

을유년 2005 년 새해는 숫았다.

벽찬 희망, 설렘 마음 새로운 결단으로 시작하는 때이다.

하지만 이 새해 벽두에 우리를 어둠과 좌절에 빠지게 하는 일들이 벌어졌다.

아시아 남부 인도양에 지진해일 쓰나미로 인해 야기된 엄청난 인명 및 환경피해의 소식이다. 그 참담함을 접하며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재 조명해보고 이 시대에 요구되는 예수공동체의 의미를 재점검해 보고자 한다.

쓰나미 여파는 대참사(Catastrophe)로 표현된다.

한 번에 인명 150 만 이상의 죽음과 수천만 억불의 재산 및 환경 피해를 가져왔다.

인도양에 접한 여러 나라들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피해를 입었다.

아시아 남부의 인디아, 벵글라데쉬, 미얀마르, 타일 랜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말디베스, 스리랑카 와 아프리카 서부에 접한 소말리아, 케냐, 탄자니아 등의 나라들이다.

그 외 인도양 해변에 휴양 혹은 사업차 들렀던 타국 사람들 즉, 북유럽의 스웨덴, 노르웨이, 독일 태평양의 미국, 캐나다, 일본 및 한국 등에도 타격이 갔다.

그동안 현대 과학자들은 사전 정보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했다.

그들은 지진을 비롯한 화산(Volcanoes),대선풍(Tornadoes),위성 충돌(Asteroids) 등의 천재지변들의 근원을 조사하고 사전에 대비토록 하는데 그 연구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하지만 성탄주말의 대낮에 일어난 쓰나미는 진보된 첨단과학의 무기력함을 입증시켰고 인도양 연안국들은 무방비상태로 자연의 힘에 굴복하고 말았다. 그 참사정도가 몇몇 국가의 규모를 넘어 동 서양 수많은 나라들 즉 국제 규모로 파급되었던 것이다.

역사상 그 예를 찾기가 힘든 이 대참사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인류 역사상 지구 전체의 생사가 달린 한 운명에 처했던 적이 몇 번이나 있을까. 세계는 점점 가까워지고 급변하는 이 세대에 제시되는 예수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살아있는 모든 생물이 지면에서 쓸어 없어져 다함께 죽을 운명에 처하게 됨을 경고한 성경의 노아 방주 이야기(창세기 6~8 장)에서 그 교훈을 찾아보고 싶다.

1. 지구의 생명체들은 한 가족

땅속 깊은 곳에서 큰 샘물이 터져 나오고 하늘에서는 홍수 문들이 열리고(창 7:11) 땅에 물이 크게 불어나 하늘 아래의 모든 높은 산들이 물에 잠기던(창 7:18)날들 노아 식구들과 살아 숨 쉬는 생명체들 즉, 짐짐승, 길짐승, 새들, 먹을 각종 곡식류들은 방주에 들어가 생사를 같이하는 한 가족의 운명체로 지냈다. 쓰나미의 대참사 앞에서 지구상 모든 생물체는 생사의 운명을 같이하는 한 가족임을 다시 한 번 확인 하는 중요한 계기인 것 같다. 그러기에 예수공동체는 더욱 자신들, 가정, 인류 구원은 물론 타 생물체들의 구원을 구하고 참구원의 길을 제시해야할 것이다.

2. 새 하늘, 새 땅

땅위에 물이 다 말라 배 밖으로 나온 방주 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언약 즉,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 하라(9:1)는 축복과 과제를 주셨다. 피해가 심한 동남아시아 인도양 해변들은 원래 인척의 왕래가 드문 곳 들이었다. 하지만 돈 많은 자본가들과 야심 있는 택지 개발업자들은 그 천연지의 원주민들을 내몰고 세계 굴지의 부호들 즉 상계, 연예계, 정치계의 거장들의 휴양지로 바꾸어버렸다. Global Warming-지구 기후 대변환- 현상으로 생태계의 균형이 깨지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공동체는 폐허된 환경을 회복시켜 새 하늘과 새 땅의 도래에 앞장서야할 것이다.

3. 공동체의 구체적 모형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을 지시 하셨을 때 믿음과 경외심을 가지고 방주를 지어 가족이외에도 타 생물체까지도 구원에 이르게 하였습니다(히브리서 11:7).

현대 문명 의 물질 풍요의 이 시대에 우리주위에는 심령이 메마르고 심신이 아파 병들어 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너무나 많이 접하게 된다. 노아는 바로 이 어두운 시대에 ‘인간과 창조물 되살리기’를 열망하는 지도자의 본이 되고 노아의 방주는 예수 공동체의 모습을 새롭게 제시하고 있다.

과연 격변하는 이 시대에 요구되는 예수공동체는 어떤 모습일까?

지난 몇 년 동안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환경의 작은 생활 공동체 ‘마이라 하우스’에서는

유럽의 예수 공동체를 돌아보며 천년 이상의 그리스도교 전통 속에 복음의 소식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양한 모습들을 터득했다. 바로 이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공동체를 구상하며 한국 이민교회들이 나아갈 길들을 함께 경험하고 연구하기위해 불란서 떼제와 스위스 라브리 공동체를 돌아보는 예수 공동체 탐방을 다음과 같이 계획하고 돌아보았다.

일정: 9 박 10 일---5 월 11(수): LA 출발, 5 월 12~15: 떼제 공동체, Cluny 수도원, 5 월 16~19: 라브리 공동체, (제네바의 세계 교회 본부(WCC) 국제 평화 기구(UNOG) 방문예정), 5 월 20 일(토): **참가자:** 선착순 12 명제한, **경비:** \$1500 (항공료 제외).

목적:

1. *Sharing Life Story*--- 세계 각처에서 오는 그리스도인들과 만나 그들과 교제 속에 서로 겪는 고통과 아픔을 나누는 중에 새로운 활력으로 충전하고
2. *Searching Beauty*---복음의 진수를 깨치고 유서 깊은 개신교 예수공동체의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재결합, 세상을 밝게 하는 아름다움을 찾아서
3. *Shaping Leadership*---사랑과 평화의 지구 공동체가 요구하는 자신의 은사를 개발 급변하는 시대에 대처하는 이민 한국 교회 및 예수 공동체의 새로운 지도자를 양성함.

1. 떼제 공동체 (1 편)

“참으로 내가 주는 물은.....영원한 생명의 샘물이 될 것이다(요한 4: 14)”

이월의 찬 기운이 서서히 가시던 어느 날 오후,
바로 전 가져온 우편물 다발 중에 한 통의 편지를 뜯어 읽어 내려가며 나도 모르게 환호성을 터트렸다. “Thank You, God.” 뉴욕에 소재한 연합 감리교의 ‘전 지구촌 사역 임원회 장학재단’ 에서 날아온 편지였다. 삼 개월 전에 보낸 나의 편지 즉 박사과정 논문의 개요와 그에 소요되는 경비의 신청을 수락하여 새 학년도에 만 불이 넘는 장학금을 지원 하겠노라는 결정과 그에 관련한 축하의 글이었다. 지난 사년 동안 제정 난에 허덕이며 학과 과정이 요구하는 이수 과목들을 간신히 마친 것도 감사한데 계속 공부가 지속될 수 있도록 연구 장학금 혜택이 주어진 것이다. 그동안 나의 공부와 몸 담아온 작은 공동체를 격려해 주시며 추천서를 써 주신 은사 몇 분들의 은덕에 다시 한 번 머리를 숙였다.

미국에 온지 약 이십년 동안 이 학교 저 학교 등에 적을 두고 지속해 온 공부기간 중 시원스런 장학금한번 받아보지 못한 나의 입장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아내는 그 축하 소식에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믿기지 않아 의아해하며 신기한 듯이 편지를 만지작거렸다. 기쁜 소식을 받은 그 날부터 본격적으로 불란서 떼제로 가는 여행 준비에 착수하였다. 먼저 떼제 웹 사이트(<http://www.taize.fr>)를 통하여 방문하기위한 사전 정보를 받아보았다. 체류기간은 연령별로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 장년이후 세대는 젊은 세대들과 구분하여 한해에 7 일로 제한되어 있었다. 모처럼의 기회를 얻은 나는 몇 주 더 머물러 좀 더 깊이 있는 체험을 해야 될 것 같아 남다른 예수 공동체에 대한 관심사와 방문 목적을 담은 내용과 함께 체류기간의 연장을 요청한 편지를 방문객 담당 책임자 앞으로 보냈다.

특별히 이번 여행이 떼제 공동체를 중심으로 여러 예수 공동체를 방문 조사하는데 그 취지가 있었으므로 유럽 쪽에 박식한 교수님 몇 분에게 떼제 지역 근방에 위치한 예수 공동체들의 정보를

의뢰했으며 유럽 감리교 본부에 전자 메일을 띄어 또 다른 몇 개 공동체의 자료도 입수 했다. 한편으론 불어에 문외한이었기에 신학교 내에 불어에 능통한 한 교직원으로부터 한 주일에 한번 씩 간단한 불어들을 배우기 시작했다. 여행 일정은 봄 학기가 끝나고 더 여름의 열기가 기세를 부리기 전인 오월과 유월 중 성령강림 주일이 낀 오월 말에 떼제에서 예배 볼 수 있도록 일정을 잡았다. 여행준비를 시작할 당시에는 여행 경비와 마이라 하우스 운영 문제로 야기되는 가중한 부담을 감안하여 혼자서 다녀올 계획이었으나 결국은 지난 몇 년 동안 줄 곳 마이라 하우스와 클레몬트 지역의 젊은이들을 위한 사역 등에 동역자의 역할을 해온 아내와 함께 지난 5월 20 일 떼제 공동체를 향해 파리 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그럼 왜 떼제를 나의 논문 연구 목적지로 삼게 되었는가? 신학 공부를 시작하기 이전부터 수도권 공동체의 삶에 남달리 심취해 있었던 나는 **현대 문명의 물질 풍요 속에서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일과에 쫓기어 심령이 메마르고 심신이 아파 병들어 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필요한 영성의 쉼터**를 항상 동경해왔었다. 그 간절한 소원을 들으셨는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인간과 환경 되살리기’ 목회의 기회를 허락 하셨다. 목사로 부름 받은 그 즈음부터 개체교회의 담임목사직이 아닌 ‘마이라 하우스’라는 작은 생활 공동체를 꾸려오며 주위에 운영되는 영성 공동체들을 조사하게 되었다. 다행스럽게도 클레몬트 신학교에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전통’이라는 과목을 들으며 더 자세히 다양한 믿음의 공동체의 예들을 접할 수 있었다. 그 중 떼제 공동체가 이번 여행의 목적지로 삼았는데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였다.

첫 째, 예수 믿는 자들이 교단을 초월하여 함께 모여 사는 생활 공동체라는 점이였다. 그리스도의 역사를 돌아보면 사랑의 돌봄만큼이나 분열의 아픔들 투성이였다. 심지어는 같은 핏줄의 한 민족 간에 세운 교회 안에서도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얼마나 나누어져 왔던가. 하지만 떼제 공동체는 지난 이 천년 동안 마찰, 전쟁, 분열 등으로 얼룩져진 유럽의 중심부에서 개신교, 천주교 및 동방정교 등의 장벽을 넘어 삶과 신앙을 나눈다는 것이었다. 과연 무엇이 서로 다른 그들을 예수님 안에 연합된 하나의 지체로 어우러지게 하는 것일까?

둘 째, 수많은 젊은이들이 세계 각지로부터 모여든다는 점이였다. 요즈음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점이며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그들이 그리스도와 멀어진다는 사실이다. 본인도 몇 해 동안 회중이 약 오백 명 쯤 되는 백인 중심의 지역교회에 소속되어 섬긴 적이 있다. 지척에 대학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젊은이들의 그룹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음에 마음이 항상 어두워 있었다. 과연 교회와 그리스도를 떠나는 젊은이들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시 모이게 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일까?

세 째, 독특한 예배형태와 아름다운 기도의 노래의 발상지라는 점이였다. 현대 교회들은 최첨단의 음향기술 시대에 각종 멀티미디어와 밴드의 악기들이 예배를 이끌어가며 ‘열린 예배’ 혹은 ‘현대 찬양 예배’ 등을 추진해나가는 추세다. 하지만 떼제 공동체에서는 그런 새 물결에 아랑곳없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예배처럼 십자가, 촛불과 성화 등을 중심으로 모여 앉아 드리는 예배형태이다. 그리고 묵상과 기도를 유도하는 짧은 기도노래들은 그 단순미와 신비로움으로 우리의 영성의 폭을 더 한층 넓히는 듯하였다. 과연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재를 나누게 하는 예배 형태는 무엇이며 바쁘고 힘들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갈증을 해소시키는 진정한 기도와 찬양의 방법은 무엇일까?

위에 나뉘대로 열거된 이유와 질문들은 삼 주간 Ep 제에 머물면서 나의 관심사의 초점이었고 이외에 현지에서 예상치도 못하던 여러 만남의 인연을 통해 방문한 예수 공동체들을 그 특징 별로 나누어 연재될 글을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겠다. 1, 떼제 공동체-첫째 주, 2. 둘째 주,

3. 셋째 주, 4. 마무리 편, 5. 성 버나드 수도원들(Citeau, Clavivau, Silvercane), 6. 개신교 생활공동체들 (Basel, Swiss; Volterra, Italy), 7. 영성 수련 공동체(Haus Petersberg, Teresa of Avila Young Adults Living Community). 8. 평가와 비전 등으로 기고를 할까한다. 지난 6월 말 약 사십 일의 여행 일정을 마치고 돌아와 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온 후 다시 한 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그동안 모은 자료들을 정리하며 앞으로 몇 주간 기재할 주제 내용의 맥이 앞으로 좀 더 예수 공동체를 더 자세히 공부하려고 하는 목회자들이나 유럽 여행을 계획하고 계시는 교계의 지도자 분들, 그리고 젊은이들과 함께 새롭게 예수 공동체를 꿈꾸는 사역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2. 떼제 공동체 (2 편)

“평화의 예수님,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만의 안락한 길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맡겨진 사람들과 하나 되어 살게 하옵소서. (로제수사의 기도)”

뉴욕을 경위 파리에 도착한 시각은 목요일 오전이었다. 대우그룹 파리 지사에 근무하는 친구의 안내로 파리 중심가 그의 조그만 아파트에 일단 여정을 풀었다. 사실 이 친구가 그곳에 상주하고 있었기에 여행일정을 더 과감하게 잡을 수 있었다. 주일 오후 떼제에 도착 할 때까지 파리의 삼박 사일은 여독을 풀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파리는 여전히 지난날 화려했던 예술 문화와 넘치는 낭만으로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었다. 여기저기에 새 모습을 향해 치닫는 도로 확장 공사, 건물 보수 작업이 한창이었다. 약 십년 전 건축사 여행 차 잠깐 들렀을 때와 별 다를 바 없었지만 새 시대에 요구되는 개발 열기에도 불구하고 곳곳에 펼쳐진 짙은 초록색의 나무숲은 떠나온 로스앤젤레스 시의 모습과는 너무 대조적이었다.

아내와 나는 주일 아침 남부로 향하는 기차 및 버스 편의 터미널 Lare de Lyon 역에서 약 두 시간 반을 달려 Mâcon-TGV(고속열차)의 역에 닿았다. 최소한으로 짐을 줄였지만 최대한 여행 경비를 줄이려 이것저것 잔뜩 싸 가지고 온 우리들의 모습은 마치 겁 없는 대학생들처럼 보였을 것이다. 침낭, 프로판 가스버너, 코펠 및 침낭 밑에 까는 에어 담요 등의 부피와 고추장, 된장, 김, 쌀과 조그만 밥솥 및 텐트 장비 등의 무게 때문에 허덕거리며 기차역 밖으로 나왔다. 하지만 주위에 정성껏 돌보아주던 친구도 없었고 한적한 시골 역 광장에 단둘이 남은 우리는 비로소 집 떠나 떠나면 객지에 떨어진 아이들처럼 당황해 하기도 했다. 약 한 시간 정도 기다린 후 영어가 전혀 통하지 않는 운전수의 안내로 떼제로 향하는 시골 버스에 올랐다.

낮은 구릉의 경사를 따라 셀 수없이 나열된 포도나무 밭들을 넘고 따사한 햇살을 등에 지고 한가히 어스렁 거리는 젖소들의 농장도 지났다. 유유히 흐르는 강줄기도 건너 곳곳의 정류장을 거쳐 약 사십 분을 달리니 몇 백 년은 일추 넘었을 돌담으로 두른 동네에 진입했다. 하늘로 치솟은 종탑과 어마어마한 규모의 중세 수도원 성전의 유적지 Cluny 마을이었다. 수도원 전통의 화려한 전성기를 누리고 유럽 영성의 중심지였던 Cluny 는 다음 기회에 다시금 더 자세히 소개하기로 하겠다. Cluny 마을을 지나 약 10 분 정도 달리니 도로 옆 사인 판에 ‘Taize’ 가 보이며 수 천 평의 초원이 마치 우리를 반갑게 맞듯이 완만히 언덕을 향해 펼쳐있었다. 남산의 반 정도 높이나 될까. 색 바랜 붉은 평기와 저택들이 높고 낮은 돌담과 각종 수목들과 어우러진 동네에 오르니 ‘Welcome’ ‘Accueil’ 등 여러 나라 말과 함께 ‘환영’ 의 한국어 사인이 보였다, 버스에서 내리니 얼굴색이 다른 남녀 젊은이들이 밝은 웃음으로 우리를 맞았다. 간단한 수속을 마치고 이미

설치가 되 있는 야전용 이인용 텐트에 거처를 정할 수 있었다. 간단한 저녁을 마친 후 예배에 참석하니 수도 해야될 수 없는 촛불들을 향하여 각지에서 몰려온 수많은 젊은이들이 예배당을 가득 메우고 중심부에 90 세가 다 된 로제 수사와 하얀 사제복을 입은 약 70 명가량의 수사들을 처음 대할 수 있었다.

떼제 공동체가 나에게 가장 큰 호기심을 불러 일으켰던 점은 바로 각 나라에서 온 젊은이들이 서로 각기 다른 믿음 전통의 답을 넘어 함께 생활 공동체를 이루고 산다는 점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슬로건에도 불구하고 분열과 싸움, 정죄와 탄압들로 각종 크고 작은 종교 전쟁들과 19 세기 말의 프랑코 프리시안 전쟁, 20 세기 초의 일차 세계대전, 20 십 세기 중엽의 이차 세계대전으로 곳곳에 전쟁의 잔재가 허다한 유럽 대륙 중심지 불란서의 한 조그만 마을에서 약 60 년이 넘게 커가는 공동체가 급힐 줄 모르는 초교파 이념과 지칠 줄 모르는 그 실천의 힘의 근원은 과연 무엇일까. 약 삼주 그들과 함께 생활을 해본 결과 다음 세 가지 특징으로 정리될 수 있겠다.

초교파 가정환경에서 비롯된 공동체

떼제 공동체의 초교파 정신과 그 생활 지침은 로제수사의 개인적인 삶에서 비롯됨을 알 수 있다. 뼈대 있는 개신교 집안에서 자란 그의 삶은 그가 쓴 “하나님은 오직 사랑 뿐(2003)”이라는 책에 자세히 기록되어있다. 구 남매 중 7 누나를 둔 막내로 태어난 로제수사에게 초교파 삶을 가르쳐주신 분은 그의 외 할머니였다. 일차 세계 대전 중 삼형제와 아버지를 모두 폐결핵으로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폭탄이 떨어지는 자기 고향에 남아 동네 구제소에 나가 불우한 사람들을 도왔다. 또한 로제 수사의 어머니도 자신이 개신교인 임에도 불구하고 천주교에 나가 먼저 화해를 실천하고 불행한 사람에게 그녀의 삶을 헌신했다. 로제수사가 중학교에 다닐 무렵부터 20 세가 되기 전까지 집을 떠나 학교 근처의 가정에 머무를 기회가 있었는데 부모의 권유로 한 동안은 부유층의 개신교 가정에서 그이후론 다수의 자녀를 둔 가난한 전쟁미망인의 천주교 가정에서 지냈다. 자신이 물려받은 개신교 사상에 천주교 신앙을 조화하며 성장한 그에게는 항상 “사랑의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왜 그리스도인들은 충돌할까”라는 계속되는 질문이 그를 가슴 아프게 했다. 1940 년 결국 그는 신학 공부를 마치고 25 세의 나이에 자기의 고향 스위스를 떠나 어머니의 나라인 불란서 땅으로 들어와 떼제를 찾아 정착했다. 전쟁이 가장 치열한 대를 지나 44 년 가을 해방된 다음 몇몇 자기 사촌들과 친구들이 추가되어 독일군 포로수용소를 방문 강냉이, 나물죽 등으로 폐허 지를 사랑의 씨로 심기 시작했다. 1950 년대부터는 평생 독신으로 단순 소박하게 살아 갈 것을 서약하는 사람들과 예수 공동체를 성장 시켜왔던 것이다.

지역 마을 안에 세계 마을을 형성하는 공동체

떼제 공동체의 초교파 삶은 공동체가 형성하는 그 주변 환경으로 간파됨을 알 수 있다. 떼제 공동체에는 그 마을로 들어가는 단단한 철제문이 없다. 도난과 사생활 침해를 막는 높은 담벼락도 없다. 떼제 마을에 들어서면 어디가 공동체 땅이고 어디가 지역 마을의 경계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곳곳에 세워진 공동체의 시설물들은 각 나라 말로 지어 놓고 떼제 소식지도 13 개국의 언어로 발간되어 배열 되어있다. 본당 건물도 동네 어느 건물과 별 차이 없게 소박하게 꾸며놓았고 제단으로 향하는 1 위엄을 높이는 계단들이나 웅장한 예전도 없다. 방문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든지 그 모두를 수용하기 위해 기존 기숙 시설 이외에 대형 천막들이 곳곳에 펼쳐있다. 떼제에서는 어느 교단에서 왔느냐 묻는 사람도 없고 평신도와 목회자가 구분이 없이 세 번 기도회, 소그룹 성경공부 및 교제 및 식사 시간에 모여 하루 일과를 지나게 된다. 그 곳에는 머무는 동안 강요하는 선언문이나 외우는 기도문도 없고 무엇을 조사하는 설문지도 없었다. 그 곳에는 자기 삶을 독신으로 헌신한 수사들 이외에 각 국에서 와 생활 중에 자원 봉사하는 젊은이들과 60 년도 후반부터 인근에 소재한 안드레 수도원 수녀들의 노동력으로 환영, 취사, 의료 및 기타 영성훈련

프로그램 등이 이루어져간다. 떼제에서 로제수사가 보내는 편지는 두 달에 한번 씩 57 개국 언어로 번역되고 70 개국으로 발송하여 세계로 통하는 초교파 공동체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했던 예수공동체의 모습 재현

떼제 공동체의 초교파 삶의 이념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했던 예수공동체의 모습과 일치한다. 복음의 말씀이 공동체의 삶의 양식이 되며 매일 그들의 삶을 새롭게 살고 닦는 기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로제수사가 그의 책에서 즐겨 인용하는 성경구절들, “너희는 먼저 형제들에게 원망들을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화해하라(마태복음 5:24)와 ” 믿는 사람은 모두 마음 한 뜻이 되어 아무도 자기재산을 제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서로 나누어 썼다. 그 중에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없었고 땅과 집을 가진 자들이 사도[공동체]에 가져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썼다(사도행전 4 장 32, 35 절) 등이다. 아침 예배 전 본당 아래층에 모여 성찬식에 참여하며 나만을 위한 일용할 양식을 구할 것이 아니라 지구촌 구석구석에 필요한 생명의 양식을 구하는 것을 매일 습관하며 다시 한 번 예수님의 떡과 포도주의 의미를 새겼다. 로제수사를 비롯한 공동체 식구들은 “각 개인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유럽과 전 인류를 위한 화해의 누룩” 입을 강조하고 서로 색깔이 다른 교단들에게 문을 열어 놓고 그들을 환영해왔다. 동방정교 지도자들(1962 년), 캔터베리 성공회 대주교(1992 년), 천주교 로마 교황 John Paul II(1986 년) 및 스웨덴의 루터 교 감독 및 14 명의 종교 지도자들(1994) 등이 떼제 공동체를 방문하고 각 나라에서 온 젊은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떼제 공동체는 그들의 소식지에 기재된 것처럼 “복음의 핵심에 뿌리를 내려 그리스도 믿음의 후손들과 연합하고 인류 공동체와 연합하는 일” 에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 초교파 예수 공동체의 모형을 보여주었다.

3. 떼제 공동체 (3 편)

여러분은 비뚤어지고 잘못된 세대 가운데에서 흠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깨끗하고 순수하게 살 수 있으며 하늘의 별처럼 빛 날 것입니다 (빌립보서 2:15)

떼제 생활 둘째 주를 맞으며 우리 몸은 공동체가 정해놓은 생활리듬에 점점 더 익숙해져갔다. 만 오천 명이라는 인파가 일반 숙소 건물들은 물론 개인용 천막들로 온통 푸른 언덕을 메웠던 성령강림절도 지나고 찾아드는 새로운 얼굴들과 인사를 나누며 또 한 주일이 시작되었다. 때때로 울려 퍼지는 종소리가 하루의 어느 때를 가리키는 지, 또한 종소리에 따라 공동체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잘 알게 되었다. 밤 9 시가 넘어서까지도 이글거리는 석양빛이 이제는 낯설지 않았고 이른 아침 무심코 들르는 동네 포도나무 받들과 정들어갔다. 매 끼니마다 손 바닥만한 베겔 빵의 고소한 맛에 길들어졌고 하루하루가 유유히 흐르는 물결처럼 끝내야 할 일의 압박도 시간의 쫓김도 없이 단순함과 풍요 속에 지나갔다.

하루 일과 중 빼놓을 수 없는 즐거운 시간의 하나는 ‘tea time’ 이었다. 매일 오후 다섯 시 십오 분부터 삼십분 간 곳곳에서 젊은 남녀들이 비스킷과 계피차를 방문객들에게 접대하였다. 이 시간은 세대 별 혹은 언어 별로 나누어진 소그룹 단위를 벗어나 만남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평복으로 갈아입은 수사들과도 혹은 먼 나라에서 온 젊은이들과도 대화를 나누며 교제의 폭을 넓힐 수 있었기 때문이다. 공동체 내에서는 다행히 영어가 공통 언어로 통했기 때문 의사소통에는 별문제가 없었다. 일주일 단위로 방문객들이 교체되지만 상당수의 남녀 젊은이들은 바뀌는 주일에도 아랑 곳 없이 몇 주 혹은 몇 달을 더 머무르곤 하였다. 체류 날이 거듭 될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각처에서 온 여러 젊은이들과 더 가깝게 예기를 나눌 수 있었고 그들과의 사이는 점점 친해져갔다.

여러 젊은이들을 모아 놓고 화장실 청소를 위해 물걸레와 빗자루 쓰는 법을 유모가 넘치게 가르치던 학생은 한국인이었다. 그녀는 파리로 기독교 사를 공부하러 온 중 지난 3년 동안 방학 때 마다 떼제에 내려와 몇 주씩 묵으며 자원 봉사를 하였다. 식사시간 때마다 음식 상자를 나르고 끼니가 모자라지 않게 챙기는 인도 학생도 알게 되었다. 이번 기간이 7번째 방문 중이라는 그는 폴란드에서 온 남학생과 항상 단짝이 되어 함께 일을 거들었다. 삼 개월 쯤 소지품 관리사무실에서 방문객에게 도움을 주는 한 젊은이는 스코틀랜드에서 왔다. 그녀는 유럽 문화사를 전공했고 대학원에서 사회 생태학을 전공하고 싶어 했다. 사 개월 쯤 자기일과를 방문객 숙소 관리 사무실에서 오전 세 시간, 합창 연습에 오후 한 시간 동안 공동체의 일을 돕는 독일 학생도 만났다. 그녀의 꿈은 언젠가 남미의 국가에 가서 선생으로 일 하는 것이었다.

그 외에도 불란서와 영국은 물론 노르웨이, 스웨덴, 체코슬로바키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스페인, 브라질, 이탈리아, 터키, 심지어는 일본 및 중국에서 온 젊은이들 까지도 만날 수 있었다. 그들의 대부분은 크고 작은 그룹에 속해 떼제에 오지만 홀 홀 단신으로 찾아 든 이들도 적지 않았다. 과연 무엇 때문에 그들은 떼제를 끊임없이 찾아들며 떼제는 그들에게 무엇을 공급해주기에 그들이 계속 머무는 것일까? 젊은 남녀들과의 대화 중에 항상 던지는 나의 질문에 대부분의 답변이 그 첫 번째 이유로 ‘국적과 믿음의 전통이 다른 곳에서 온 젊은이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는 점을, 두 번째는 ‘떼제 공동체의 아름다운 음악’ 때문에, 세 번째론 떼제 공동체가 어느 곳 보다는 ‘젊은이들을 우선적으로 접대 환영’ 한다는 점을 꼽았다.

그들의 답변을 되새겨 보니 그동안 왜 많은 젊은이들이 우리 주위의 교회들을 멀리 하는 지 그 이유를 조금이나마 감지할 수 있었다. 우리는 주변의 젊은이들을 위하여 섬기는 교회 내에서 국적과 얼굴 색, 혹은 교파의 구분을 뛰어넘어 다른 상대방을 알게 하려고 집회를 열어 만남의 기회를 제공했던가. 젊은이들을 교회로 끈다는 이유로 강단을 각종 악기와 최첨단의 영상 시설로 치장하기보다 먼저 그들이 진정으로 갈망하는 아름다운 음악과 예배분위기 개발에 얼마나 노력했던가. 또한 교회운동을 위해 우리는 부호의 장년층이나 전문직의 중년층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이전에 교회 내에서 자리를 찾지 못하는 젊은이들의 고민거리를 들어주고 그들의 고통을 나누기위해 과연 정성을 쏟았던가.

떼제에 한번 체류한 후 공동체를 떠나 자기 고향 집에 도착 할 때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더라. 며 연이어 계속 방문하게 된다는 젊은이들의 반응 중 대부분이 떼제의 생활은 결코 쉽고 재미있는 것만은 아니라 고백한다. 왜냐하면 떼제에 머무는 여러 작은 순간들 속에서 커다란 인생의 결단을 요구하도록 하는 도전을 받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기독교 저널리스트 Gonzalez Balado의 The Story of Taize (1987)에 잘 나타나 있는 것처럼 젊은이들 중심의 공동체 시작은 1949년 부활절 예배였다. 로제 수사를 포함한 7형제가 각자의 인생을 헌신하며 크기 시작한 이 공동체는 1970년 전 까지는 대부분 18세~25세의 젊은이들이었다. 지난 50년 이상 성장해 오며 현재 수많은 젊은이들의 순례지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근거는 다음 세 가지로 들 수 있겠다.

첫째는 그들이 무엇 때문에 고통 하는지 간파하고 그들의 아픔을 덜어주는 일이다.

로제수사는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오늘날 가장 심각하게 겪는 시련 두 개를 꼽는다. 하나는 바로 무너지고 갈라지는 민족과 민족, 교회와 교회 그리고 가족과 가족사이로 인해 겪는 상처를 든다. 그들이 정들었던 그룹이나 사랑하는 사람들로 부터 멀어지면서 겪는 상처 때문에

그들은 쉽게 절망에 빠지게 되고 삶의 의미를 잃게 된다는 점이다. 또 다른 하나는 그들이 갖는 두려움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그리스도와 멀어진다는 점이다. 그들은 대부분 유아기 때부터 부모 따라 교회를 나갔지만 성장해 가며 그들이 결국 교회 내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점을 알아차리게 된다. 결국은 대대로 내려오는 웅장한 교회 성전과 교리 위주의 장황한 가르침을 소화하지 못하고 자신들은 믿음이 없으며 기도도 할 줄도 모르는 초신자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자포자기 하며 결국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을 잃어간다는 점이다. 떼제 공동체는 바로 그렇게 흔들리는 이들을 초대하여 세계 각처에서 오는 젊은이들을 만나는 기회를 제공해주며 그들과 교제 속에 자신 말고도 먼 나라에 사는 같은 또래의 젊은이들도 고통하고 있음을 깨우쳐 그 나누는 아픔 중에 새로운 활력을 얻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둘째로 젊은이들에게 부여된 그들만이 갖는 하나님의 선물을 일깨워 주는 일이다.

젊은이들이야말로 빌립보서 2:15 말씀대로 “비뚤어지고 잘못된 세대 가운데에서 흠 없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재강조하고 그들은 “깨끗하고 순수하게 살 수 있으며 하늘의 별처럼” 세상을 밝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점을 깨우쳐 주는 일이다. 떼제 공동체는 바로 젊은이들이 소유하는 하나님의 선물 중 하나가 ‘믿을 수 있는 신뢰’라는 점이다. 젊은이들은 그들 사이가 어느 정도 가까워지면 거리를 두지 않고 결코 자기를 변명함도 없이 성인들이 신경 쓰는 제약도 벗어난다는 점이다. 그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부르는가에 항상 호기심을 느끼며 단순한 믿음으로 “전심을 다해 사랑과 용서에 쏟을 수 있는 열정”을 보인다는 점이다. 떼제 공동체는 바로 젊은이들이 부여받은 하나님의 선물로 1966년 9월 첫 국제회의를 열고 1970년부터 젊은이들로 구성된 국제 심의회를 구성세계각처에 무고하게 세상을 떠난 희생자들의 선혈이 낭자한 도시들 즉 한국의 목포 시, 뱅글라데쉬, 우간다, 베를린, 미국 오하이오의 Dayton 시들을 찾아다니며 지구촌 신뢰의 행진(Pilgrimage of Trust on Earth)을 펴오고 지구촌에 다시 사랑과 평화로 화해 질수 있도록 모임을 조성하고 있다.

셋째로 그들이 떼제 공동체에 와 복음의 진수가 정죄와 고통대신에 행복의 비결을 알려주는 사실을 깨치고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재결합되는 기회를 마련해준다는 점이다. 로제수사는 자신이 20세 전 까지 농부나 작가가 되기를 소원했던 회의론자였다. 어렸을 때 재발되는 폐결핵으로 매번 죽을 고비를 넘긴 그는 결국 죽음에 이르러야 우리의 영혼은 치유된다는 사실을 터득하게 되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죽음에 자신의 운명을 내 맡기며 한 편으론 생명력이 공급되는 그 힘에 그저 한 가닥의 신뢰감을 놓치지 않았다 한다. 인생의 고비가 찾아올 때 마다 “내가 가장 약할 때 강한 나(고린도 후서 12:10)”를 거듭 깨닫게 되고 그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충격으로 새 삶으로 향했다한다. 떼제 공동체는 로제 수사 자신이 극복 했던 것처럼 어두워져 가는 젊은이들의 마음에 생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여러 모임을 제공하며 그들이 다시 자기 사는 곳으로 돌아가 5-6명의 작은 공동체의 그룹에 소속되어 서로 연대감을 키우고 지역교회와 연결되어 자신들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일을 게으르지 않고 있다.

4. 떼제 공동체 (4 편)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것이 내 계명이니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면 이 보다 큰 사랑은 없다 (요한복음 15:12-13).

유월의 뜨거운 열기는 불란서 전역에 기승을 떨치고 그 습한 더위가 떼제 공동체를 휩쓸었다. 초롱초롱 별빛 아래서 은은한 풀벌레 소리 벗 삼아 지냈던 이국의 밤들이 그렇게 낭만적이지만은 않았다. 한때 쏟아진 소낙비로 옷가지 및 책자들이 젖게 되고 무더위로 인해 침낭과 담요는 땀내로 베어갔다. 야전 텐트 안의 잠자리는 점점 쾌쾌 묵은 냄새로 질어가고 폭신평신했던 안방 침대가 그리워졌다. 한 주 단위로 짜진 떼제 공동체 프로그램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들은 금요일 밤 예배 때 십자가에 머리를 얹고 드리는 기도회, 토요일 밤의 촛불 예배, 그리고 주일날 성찬식을 곁들인 부활 예배들이었다. 일정한 시간표에 따라 움직였던 하루 일과 즉, 하루 세 번 예배, 세끼 식사, 오전, 오후에 갖는 성경 공부, 참가자들이 실습을 할 수 있는 도자기 및 페인팅 워크숍 등이었는데 공동체 생활 삼 주째 접어들면서 공동체에 대한 처음의 호기심도 식어가고 주변 환경이 주는 신선함도 사라져갔다.

그 즈음 자칫 하루 일과가 지루해져 갈 때 마다 청량제처럼 신선함을 공급해주는 두 곳이 있었다. 그 중 한 곳이 공동체 동쪽에 위치한 호숫가였다. 주거공간이 자리를 잡은 언덕에서 동쪽을 향해 숲속 소로 길 따라 약 십 여 분 간 내려가면 불어로 Source 라 이름 지어진 호수가 나온다. 지중해까지 흘러내려가는 Saône 강줄기에 연결된 그 호수는 영어로 번역하면 Spring Water 즉 ‘샘물’이라 불린다. 각종 고목들과 풍만한 수양버드나무들의 생수의 원천인 이 호수는 때때로 찾아가는 나에게도 더 없는 안식처였다. 다른 한 곳은 바로 공동체 중심부에 위치한 예배당이었다. 완만한 경사 지붕 위에 양파모양의 크고 작은 둥근 탑들이 여기 저기 일곱 개 솟은 단층 규모의 건물이다. 보통 축구장 하나만한 크기나 될까, 어쩔 수없이 바닥에 앉을 수 없는 몇몇 사람들을 위한 몇 개 의자이외에 완만한 경사 시멘트 바닥을 붉은 색계통의 얇은 카펫이 깔린 그저 텅 빈 내부공간이다.

바로 이 예배 공간에서 하루 세 번 공동체와 함께 모여 기도 드릴 때, 혹은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홀로 앉아 있을 때를 통해 하나님 일에 부름 받은 나의 소명이 점점 더 확실해지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앞으로 어느 곳을 향해 나아가야하며 무슨 일에 앞장서야 할지가 선명하게 떠오르곤 했다. 더욱 분명하게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은 오직 사랑뿐” 이며 예수님의 짧은 생애에 대변되는 그 가없는 사랑은 나 같이 보잘 것 없는 존재까지도 감싸 안으시고 성령님께서서는 나와 우리 공동체 식구들을 그 지극한 사랑 가운데 행복하게 살도록 이끄신다는 점이었다. 바로 이 떼제 공동체의 예배공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독특한 예배형태와 아름다운 기도 노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빼뚫어진 역사도 바로 세운다는 점을 깨닫게 된다. 더 나아가 자신에게 주어진 가능성을 발견 순간의 무료함에서 벗어나 좀 더 의미 있는 삶으로 초대된다는 점이다.

떼제 공동체 예배는 마치 여러 작은 기도들 즉, 노래기도 묵상기도, 탄원기도 등의 여러 기도 고리가 연결되어 하나의 큰 기도로 연합된 형태이다. 그 예배 분위기는 다섯 가지 감각기능에 영감을 합한 즉, 온몸의 육감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 하도록 인도해준다. 어디에선가 피어오르는 로즈마리 향기는 텅 빈 예배공간을 차분하게 안정시키고 곳곳에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이 그려진 성화들을 보노라면 그 안에 감도는 영적 지혜를 터득하도록 한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의 어렴풋한 모습은 신비스럽게도 모든 사람을 감싸 안는 무한한 사랑을 체험 하게한다. 커다란 화염처럼 세워진 붉은 천들, 크고 작은 원통형의 황토 벽돌 안에서 흔들거리는 촛불들을 보노라면 하나님의 존재는 비록 눈으로 확인되지 않지만 꺼져가는 사랑의 불꽃을 태우시고 불 지피시는 분이심을 알게 된다. 불란서 신학자이며 러시아 정교 목사인 Oliver Clément 는 그의 책(1976), “TAIZÉ: A Meaning to Life”에서 떼제 공동체는 그동안 예배를 통해 “내면의 깊은 세계 발견과 외부의 지구촌 인류와 연합” 을 추구해 왔으며 예수님의 부활을 자기 체험 하도록 이끄는데 있음을 밝혔다.

떼제 공동체의 예배는 그 출처가 세 가지의 원천에 그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는 그리스도 역사 속에 크고 작은 예수 생활 공동체들의 기도 전통의 수렴에 기인한다는 점이다. 초대 그리스도 공동체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예배 전통을 살펴보면 그 초점은 영이신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으며 그 골자는 말씀듣기, 노래기도, 그리고 묵상 등으로 이루어졌다. 등불이 어두움을 밝혀주듯이 말씀이 귀를 열어준다(베드로후서 1:19)는 말씀대로 특별히 묵사의 설교 없이 수사들이 정해진 순서에 따라 돌아가며 수개국의 말로 시편, 복음서, 서신서 등을 읽어 내려간다. 노래기도는 특별히 아주 소박한 말로 이루어졌으며 일정한 표현을 끊임없이 반복하여 노래하는 법이다. 성서에서 쉽게 이해되는 구절 중 신앙의 핵심을 담은 짧은 글들을 뽑고 그 가사를 오랫동안 반복해서 부름으로써 그 내용이 우리 뼈 속과 살 속에 스며들게 이끈다는 점이다. 노래기도는 돌림노래, 합창 및 응답 송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며 혼자 있을 때도 침묵가운데 끊임없이 기도 할 수 있게 한다. 묵상은 특히 침묵으로 이루어지며 흘러가는 현재 순간을 음미하게 하며 복잡한 마음을 단순하게 해주고 세상사의 근심으로 꽂 찬 마음을 텅 비워준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의지하듯 주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뢰감이 채워지도록 인도한다. 예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약 십분 정도 침묵을 하노라면 전체가 합일됨을 체험하게 되고 특히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로 어우러진 공동체의 삶이 주는 경이로움을 찾도록 인도한다.

둘째는 로제수사의 개인적 체험에서 키워진 결실이었다. 로제수사는 자신이 신학공부 1년을 마친 1937 년경 자신의 믿음에 회의가 일기 시작했다한다. 특별히 기도에 문외한이었던 그는 당시 자기의 일곱 누나 중 한분인 Lily 가 임신 진통으로 죽음에 임박해 있을 때 어떻게 누나를 도와야할지 막연했었다. 그 때 자기도 모르게 시편의 한 구절을 입으로 읊조리며 하나님께 간구했다 한다. 나중에 기적적으로 누나가 완치 되면서 자신의 기도 방법에 확신을 갖게 되고 젊은이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권면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대단한 자질이나 초인적인 노력으로 다듬어지길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정한 표현을 끝없이 반복하는 기도는 자발성이 없는 소극적 기도 방법처럼 보이지만 꾸준히 그렇게 기도하다보면 어느 날 내면으로부터 무언의 기도가 절실하게 용솟음쳐 오르게 되어 자신의 영적 생활에 큰 영향이 되었음을 강조했다.

셋째는 미지의 아름다움을 향해 끊임없는 성령님의 초대에 기인한다. 한 시편 기자가 “내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너는 네 희망을 하나님께 두어라. 너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라(시편 42:5) 외친 것처럼 로제수사는 젊은이들에게 기도를 통해 미지의 아름다운 삶으로 향하기를 권하였다. 심령을 밝히는 불빛이 꺼져가는 젊은이들에게 다시 그 불길을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신뢰하도록 강조한 것이다. 기도가 빠진 삶은 장애물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 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특히 젊은이들에게는 이유 없는 반항과 증오심이 끓어오르고 불만, 열등의식, 더 나아가 자기비하와 용서받지 못한다는 느낌 등에 사로잡히게 된다. '당신의 삶에서 무엇이 가장 아름다운가' 라는 젊은이들의 질문에 로제 수사는 서슴없이 "침묵"이라 답변하였다. 떼제 공동체는 매 예배 때 마다 단순미와 신비로운 힘을 지닌 침묵이 곁들인 예배를 통해 하나님 사랑과의 교제를 깊게 하고 성령님의 초대로 아름다움의 극치를 이루는 예배를 창출해가고 있었다.

5. 떼제 공동체 (5 편)

“그날이 오면 레바논의 밀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고...어둠과 흑암에 싸인 눈먼 사람들이 눈을 떠서 볼 것이며...천한 사람들이 주안에서 더없이 기뻐하며 가난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안에서 즐거워 할 것이다 (이사야서 29:17-19).

떼제 공동체의 생활 삼주가 훌쩍 지나갔다. 미국 서부에서 온 우리는 동부나 중서부 및 남부에서 오는 다수의 그룹들을 보며 언젠가 우리도 우리주위의 동료목사들이나 젊은이들과 함께 와야 되겠다는 다짐을 해보기도 했다. 그들은 보통 학교나 교회 단체를 통해 그룹으로 방문하곤 했는데 그들의 유럽 여행 일정은 12~13 일 정도를 잡고 있었다. 떼제 공동체 일주일 일정에 약 기차로 다섯 시간 안에 닿는 스위스 제네바의 세계 평화 기구나 국제 교회 본부 등을 여행 일정에 넣어 온 것이다. 예수공동체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온자들은 그리 많지 않았지만 그들의 관심사는 나의 것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공동체의 시작은 힘들게 혼자 하는 믿음 생활에서 벗어나 함께 의지하며 약한 점을 보완하고 강한 점을 키워 그 힘을 다음세대를 위해 쓰에 있을 것이다. 하지만 떼제 공동체처럼 독특한 예수공동체로 발전시켜나가는 데는 그 나름대로 특별한 동기와 뜻의 실천에 있었다. 특히 세 가지의 특징 즉, 예수님 믿는 자들이 교단을 초월하여 생활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점, 교회를 떠나고 그리스도와 멀어지는 젊은이들을 다시 불러 모으는 점, 촛불과 성화 앞에서 묵상과 기도 중심의 예배와 독특한 기도노래를 창출해 내는 점 등은 공동체가 커갈 수 있게 한 추진력이 되어왔다. 남자 몇 명이 시작했던 작은 공동체가 세계적으로 알려진 공동체로 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동기는 로제수사가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들어왔던 Port-Royal 역사 이야기 속에서 얻은 신념에서 비롯된다.

Paris 서부에 위치한 Port-Royal-de Champs 는 13 세기부터 유래되는 내려오는 수도원의 발상지다. 초기에는 베네딕틴 수도회에 속했으나 나중에는 시토회(Cistercian) 여성 수도원이 된 곳이다. 17 세기 초에 그곳의 책임자가 죽게 되자 파리 부호의 변호사의 딸이 그 자리에 앉게 되었다. 그녀의 조부가 자기의 손녀를 그 자리에 오르기를 간절히 소원했기 때문에 본인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벌어진 일이다. 손녀인 Angélique 는 불만으로 가득 찬 채 어쩔 수없이 수녀를 어둡게 그 자리를 지켜왔다고 한다. 17 살이 되던 어느 날 불품없고 존경받지도 못하는 한 수도사가 그 수도원을 방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되었는데 혼신을 다해 전하는 설교로 Angélique 마음에 소용돌이가 일고 얼어붙었던 마음이 동하게 되었다. 그 일을 계기로 그 곳에 부름 받은 자신이 얼마나 행운아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한 끝에 수도원 개혁이 단행되고 새 시대에 필요한 교육으로 주위 사람들의 삶에 큰 변화를 일으켰다고 한다.

그 즈음 그 여성 수도원 근처에 남성들만의 수도원(Messieurs de Port-Royal)도 설립되어 불란서 국가에 필요한 유명한 사상가들, 수학자, 종교학자들이 발굴되었고 천주교와 교황의 절대권위에 반격한 그들의 예리한 비평으로 결국에는 수도원이 문을 닫게 되었지만 불란서 혁명을 불러일으키는 전인차 역을 했다고 한다. 로제수사는 자신이 성장한 후에 그 이야기를 되 새겨 보며 유능한 인물들을 배출하여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게 했던 공동체의 힘과 그 것을 가능케 했던 한 여자의 의지에서 비롯되었다는 결론을 얻었다. 떼제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었던 계기는 비록 시대는 흘렀지만 남성들도 Angélique 와 같이 마음의 변화를 받아 나라의 운명을 결정 짓게 하는 인물들을 산출해내는 공동체로 키워갈 수 있다는 로제수사의 신념에서 출발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반세기가 넘는 세월동안 꾸준히 성장해 올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보다도 로제 수사를 비롯한 수사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된 삶이라 여겨진다. 어디를 돌아봐도 특별히 법조문이나 생활규례를 찾아볼 수 없는 떼제 공동체이지만 교파를 초월하여 모인 젊은이들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려면 다음과 같은 질문에 서약을 한다고 한다.

1.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당신의 삶을 온전히 바칠 수 있겠는가?

2. 공동체의 일원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섬김의 도를 따르겠는가?
3. 공동체의 물적 영적 자산을 위해 자신을 내 놓을 뿐 아니라 개인의 소유권까지도 거부할 수 있는가?
4.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공동체의 삶에 최대한 헌신할 수 있도록 독신으로 남을 수 있는가?
5. 한 마음 한 뜻 한 지체인 공동체를 위해 겸허하게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 설 수 있는가?
6. 공동체 식구 한 사람 한사람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모습을 찾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고통 할 수 있는가?

각자 수사들이 그리스도 안에 동거하며 내면의 침묵으로 맡은 일에 정진하기를 다짐하는 위의 서약들은

개인 가정을 돌보고 사유재산을 누리며 말씀 전파에 혼신을 쏟는 우리 개신교 교회

목회자들에게는 신중하게 돌아봐야하는 교훈이 아닐 수 없다.

아무리 첫 시작의 동기와 그 뜻에 부합되는 실천을 하며 나간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면 지구촌 어디든지 완전한 곳이란 없을 것이다. 떼제 공동체 내에서도 개선되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이 꼬집을 수 있다. 젊은이들을 우선으로 환영하는 까닭에 장년이나 노년 등에게는 차별을 둔다는 점이다. 체류 기간을 일주일로 제한하거나 제공되는 음식이나 환영 절차에 차이가 있는 점이다. 또한 암암리에 눈에 띄거나 보이지 않는 경계선에 의해 공동체의 전반적인 운영이 분명히 분리되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예배 공간 중 수사의 자리가 일반인들과 구분되어 있다는 점이랄지 예배 집전을 인도하는 자들이 하얀 수사 복을 입은 남성들만의 독점이 되어있다는 점이다. 그 이외에 매일 7 천명 가까이 되는 방문객들에게 공평하게 필요한 편의를 다 제공해 주지 못한다는 점 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의 말씀처럼 레바논의 밀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고...어둠과 흑암에 싸인 눈먼 사람들이 눈을 떠서 볼 것이며...천한 사람들이 주안에서 더없이 기뻐하며 가난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안에서 즐거워하는 그날을 향해 오늘도 최선을 다해 정진하고 있는 떼제 공동체에 찬사를 보낸다.

6. Cluny 와 시토 수도원 공동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마태 11:29)”

불란서 여행 중 떼제 공동체와 더불어 나의 관심사를 모았던 곳은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겸손의 도를 매일 삶 속에서 갈고 닦아오며 그 맥을 천 년에 가까운 세월동안 지켜온 수도원들이다. 약 6 세기경 로마로 공부하러갔던 한 젊은이 Benedict 는 당시의 세파에 흡수되어 방종함과 향락함으로 지내는 믿음의 동료들을 피해 Subianco 의 동굴에서 독신으로 수행생활에 전념했다. 삼년의 세월이 흐른 후 그를 따르는 자들이 늘어나자 그들과 함께 공동생활을 이루게 되고 12 명 단위의 생활 공동체들이 차츰 증가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공동체에 필요한 삶의 지침서 Benedict Rule 이 제정되고 중세이후 크고 작은 생활 예수공동체를 형성 발전시킨 초석이 되었던 것이다.

Cluny 는 떼제 공동체에서 버스로 약 십여 분 거리에 위치한 지역으로 중세시대에 가장 큰 규모의 성전과 수도원이 자리 잡은 곳이기도 하다. 떼제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가까운 거리 관계와 잦은 버스왕래로 인해 자주 Cluny 를 방문하게 된다. 떼제 마을이 작은 고을 단위 "리"라 친다면 Cluny 는 "군"정도의 크기로 그 곳에는 로마 제국 멸망이후 고딕 양식이 꽃피우기 전까지 번창했던 로마네스크의 건축 양식의 주택들과 교회 및 공공건물이 즐비하다. 특히 그 중심부에 자리 잡은 Cluny 수도원은 910 년경 베드로와 바울사도에게 헌정된 베네딕틴의 수도원으로서 16 세기에 로마의 베드로성당이 증축되기 전까지는 중세에 가장 큰 규모의 성전으로 손꼽힌다. 11 세기 말 그 전성기에는 10,000 명에 가까운 수사들과 유럽 전역에 1,200 여개의 크고 작은 수도원들을 거느렸다는데 현재 남아 있는 손상된 건물의 유적만으로도 그 장엄했던 규모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시토회(Cistercian)수도원은 1098 년에 부와 권력으로 인해 예수공동체의 순수성을 잃어가는 Cluny 체제에서 벗어나 "Reformed Benedictine"의 구호를 내걸고 Cîteaux 라는 지역에서 시작되었다. Cluny 에서 약 100 킬로미터도 안 되는 거리에 있지만 곧 바로 가는 교통편이 없어 Chalon-Sur-Saone 라는 마을까지 기차로 간 후 그 곳에서 자전거로 약 한 시간 반을 달려 찾아갔다. 한창 더운 6 월 중순의 날씨는 아내와 나의 등을 흥건하게 땀으로 젖게 했고 오래간만에 시도한 왕복 세 시간의 자전거 경주는 하반부의 근육 통증을 불러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하지만 실바람에 넘실거리며 풍요롭게 펼쳐진 밀밭의 정경에 가슴이 트이고 울창한 산림의 오솔길에서 들어 마시는 신훈의 짙은 향기에서 청량제를 공급받았다. 옛 불어"Cistels" 즉"Reeds(갈대)"에서 유래된 시토회는 당시의 도미니칸 회나 프란시스칸 회가 도회지를 선호하는 점과 달리 가파른 산기슭이나 높지 근처등 주거지가 형성되기 어려운 자연 환경에 자리를 잡고 그 황량한 광야 같은 곳을 윤기 흐르는 가난한 땅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을 구도의 길로 삼는다는 점이다.

장식 조각품이나 스테인드글라스 등이 배제된 시토회 수도원 건물은 그 형태의 단순성과 견고성에서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으며 특히 주위 자연 환경을 최대한 이용한 기능위주의 건축양식과 목공, 양봉 및 논밭 가꾸기로 자체적으로 생계를 해결해 오고 있다. "Doctor of Church"혹은 "Monastic Theologian"으로 기독교사에 남은 St. Bernard 를 통해 더욱 번창했던 시토회의 공동생활의 특징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된다. 1. 내적 평화를 위한 자신과의 삶이다. 침묵과 노동을 통한 기도로 인해 내적 강건함을 얻게 되고 그에 따라 온몸 즉 심신의 강건함이 길러짐을 실천하는 삶이다. 2. 단결을 위한 공동 식구들과의 삶이다. 개인의 약점을 보완하기위해 남과 함께 사는 것에서 특히 침묵을 강조했다던 이유는 분열을 조장하는 쓸데없는 잡담이나 소문을 피하기위해서이다. 3. 하나님과 다음 세대를 위한 순례자로서의 삶이다. 수도자는 곧 농부나 다름없음을 깨닫고 땅을 경작하거나 급류를 억제하고 용수의 공급원인 새로운 수로를 만드는 등의 작업이 자신의 세대보다는 이후에 살게 될 후손들의 복지를 위해 열정을 쏟은 것이다.

단호하게 수도원 개혁을 시도 했던 시토회도 그 출발 후 500 년이 지난 후에는 또 다시 개혁의 바람에 진통을 겪었다. 17 세기 초에 개혁의 수단으로 다시 첫 시토회의 예수공동체 모습으로 돌아가자고 주창했던 자들이 Trappist 회이고 그 수도원회의 줄기가 시토회를 오늘날까지 성장시켜오고 있다. 유명한 시토회 Trappist 의 수사 한사람이 바로 그리스도교 신비주의자 및 영성 작가로 손꼽히는 미국의 Thomas Merton(1915-1968)이다. 각종 산업 기계화와 첨단문화로 인해 육체적인 수고를 하지 않아도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오늘 날에도 St Benedict 가 "참다운 수사는 그의 손으로 노동하며 살 때"라 지적 했던 대로 삶의 근거를 "기도, 노동 그리고 청빈"에 두며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의 모습을 공동체 안에 재현 시켜 나가고

있다. 인근에 살며 방문객들을 인도하는 일에 자원봉사를 하는 한 안내원은 현재 시토회는 53 개국이 넘는 세계 곳곳에 7,000 명이 넘는 남 녀 수사들이 336 개의 예수공동체에를 이루고 매년 두 개의 새 공동체가 불어난다고 보고했다. Cîteaux 이외에 둘러본 시토회는 St. Bernard 가 수도원장으로 출발했던 Clairvaux 와 남부 Provence 지방의 Silvacane 등이다.

7. 초교파 영성공동체들 (1 편-스위스, 이탈리아, 독일)

“하나님은 우리를 새 계약의 일꾼으로 삼으시고…….성령님의 종이 되게 하셨습니다(고린도후서 2:6)”

불란서 주위에 소재한 초교파 예수 공동체들은 폐제 공동체와 시토회 여러 수도원들과 더불어 일정에 잡혀있었던 관심사 중 하나였다. 여행 계획 당시 유럽 감리교 본부로 입수한 초교파 예수공동체들은 주로 스위스에 산재하였다. 바질의

Friedensgasse(<http://www.friedensgasse.ch>) 와 Don Camillo

공동체(<http://www.montmirail-doncamillo.ch>) 그리고 취리히의

Diakoniegemeinschaft (<http://www.dege.ch>) 공동체 등이었다. 먼저 웹 사이트로 들어가 그 홈 페이지들을 조사해보니 다 독일어로 적혀있었다. 방문을 위한 사전 조사가 더 확실해야 했지만 그들의 주소만 들고 난생처음 알프스의 나라 스위스를 방문하기위하여 취리히 행 열차에 몸을 실었다.

우람한 성당들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도심지를 장식한 천주교의 나라 불란서와 대조적으로 개신교 정신에 세워진 나라 스위스에는 예수 공동체가 육중한 교회의 담을 벗어나 크고 작은 규모의 생활 공동체로 평범한 시민들의 일반 삶 속에 스며들어 있었다. 첫 번째 방문한 곳은 취리히의 Diakoniegemeinschaft (<http://www.dege.ch>) 공동체였는데 감리교에 뿌리를 둔 공동체라 특별한 기대를 가졌었다. 번잡한 도심지 대로에 접해있는 주상 복합 건물에 소재하였는데 도착한 당시 그 건물 내 외부 전체 보수 공사가 한창진행 중이었다. 건물의 일부는 여전히 사용되던 터라 연거푸 초인종을 눌러보았지만 반응이 없어 말로 다 할 수 없는 실망을 안고 다음 공동체로 발길을 향했다.

부슬 부슬 내리는 6 월 중순의 비를 맞으며 바질의 Friedensgasse 공동체 집에 도착했다. 첫 번째의 방문과 대조적으로 영어에 능통한 담당자 Irene 의 안내로 자세한 설명을 듣게 되었고 시설을 돌아본 후 점심식사에도 참여할 수 있었다. “평화의 정원” 이라 불리는 이 공동체는 약 20 년 전에 스위스 개신교에 소속된 네 사람의 동역 자가 뜻을 모아 기존 교회에서 손이 미치지 못하는 병약한 자들을 돌보며 시작한 생활공동체였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사회 속에 사랑의 불모지로 불러 일꾼으로 삼으셨다는 확신을 갖고 열심히 봉사해오다보니 이제는 버젓이 사회복지 기관으로 성장하여 정부의 자금 보조로 운영된다고 하였다. 건물 외부 모양이 주변의 일반 주택들과 별 다를 바 없었지만 집 안에는 업무를 보는 사무실들과 손님을 위한 객실, 상주 식구들의 각자 침실, 식당 및 부엌시설 이외에 도서실, 예배 실, 그리고 약 20 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회의실 등을 갖추고 있었다.

약 12 명의 주거가 가능한 이 공동체 집의 안 뜰은 잘 가꾸어진 꽃나무들과 작은 연못과도 어우러져 식구들이 안심하고 쉴 수 있도록 외부와 차단되어 있었다. 공동식구들의 구성은 시설의 운영을 담당하는 두 명의 사무원들 이외에 앞 못 보는 중년 여인, 남미에서 온 대학생과 서너 명의 독신으로 지내는 평범한 직장인들도 포함하여 다 합해 열 명 정도가 함께 살았다. 매 식사 전 간단한 기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하루 일과는 다양한 취미활동을 고려한 주 중의 저녁시간과

조화되어 짜여졌다. 주말의 일정은 각자가 자유롭게 서로 다른 교회에 참석하도록 하거나 개인의 자유 시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되었다. 시작 당시 사회생활에 큰 어려움이 없는 약간의 정신적 장애나 신체적 결함이 있는 자들과 함께 살며 서로의 손발의 역할이 되어주었던 공동체가 그 동안 성장하여 또 다른 두 곳에 비슷한 생활 공동체를 형성하였는데 한 곳은 바질 시의 변두리에 있었고 또 하나는 이탈리아 중부에 소재하고 있었다.

Irene의 소개로 사전에 계획도 없었지만 뜻밖에 찾아갔던 곳은 이탈리아 투스카니 지역에 위치한 Fioli 농장 공동체였다. 바질의 Friedensgasse 공동체가 바쁘게 움직이는 도심지의 생활 공동체라면 Fioli 농장 공동체는 사방이 높고 낮은 구릉의 초원으로 둘러싸인 시골의 영성 수련원이었다. 플로렌스와 피사 사이에 위치하며 자체적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공동체는 독일에서 내려온 약 열 명의 그룹이 막 떠나 상주 식구 세 명만이 살고 있었고 최근에 다시 보수하여 지은 피정의 집 같은 곳이었다. 하루 일과는 공동체(communit), 노동(work), 영성(spirituality)의 세 요소를 생활의 근거로 삼고 버림받은 자들, 심신이 지친 자들, 불우한 조건에 처한 자들에게 재분별(reflection), 재적응(reorientation), 재충전(regeneration)의 기회를 접할 수 있도록 정해져있었다. 특별히 세계 평화를 위하여 점심 기도시간을 할애하는 이 공동체는 “그리스도교의 전통에 뿌리를 내리고 교파와 교단의 담을 넘고 지구촌 공동체의 평화를 추구” 하는데 그 설립 이념을 두고 있었다. 목가적인 분위기 속에서 한적히 지냈던 삼박 사일은 그동안 쌓인 객지의 여독을 풀기에 충분했고 근방의 중세도시들을 방문하며 투스카니 지방의 역사를 돌아볼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였다.

야간열차로 알프스의 산맥을 관통하여 새벽에 도착한 곳은 독일의 수도 뮌헨이었다. Fioli 농장에서 알게 된 로즈마리 덕분에 뮌헨 북쪽에 약 한 시간 기차로 달려가는 곳 Erdweg 시에 자리 잡은 피터스버그 영성공동체였다. 개신교도이면서 성화를 그리는 일에 소명을 받은 로즈마리가 거주하는 이 영성 센터는 피터스버그 카운티 정부와 천주교에 소속한 농경 대학이 합자하여 세워졌고 가까운 거리의 숲 속에는 약 천 년 전에 세워진 예배당이 복원 중 이었다. 진입로의 회랑위에 수십 개가 넘는 태양열 전자 판들로 부터 전기를 생산하는 등 무공해 냉난방의 최첨단 시설을 갖추고 있는 이 영성 센터는 비록 천주교에 소속되어 각계 종교 지도자들의 왕래가 빈번하지만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한 개인 상담을 제공하는 기능까지도 겸하였다. 또한 지역 교육 문화센터로서 각종 문화 및 연장 교육 그리고 전문 훈련 프로그램 등이 제공되고 있었다. 격변하는 현 시대에 정부와 교회 그리고 지역 주민이 영성 교육 센터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움직여나가는 점은 영성 공동체들이 앞으로 어떻게 개발되어야 할지를 제시하는 듯 했다.

8. 초교파 영성 공동체들 (2 편-스위스, 이탈리아 독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이 내 계명이니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린다면 이보다 큰 사랑은 없다(요한복음 15:12-13)”

독일의 피터스버그 영성 센터가 특별히 인근의 주민들을 위한 상담과 영성훈련장으로 사용될 수 있었던 동기는 한 성직자, 요하네스가 약 40 년 전 하나님과 세운 언약에 기인한다. 뮌헨 지역을 관할하던 천주교의 한 지도자였던 그는 히틀러 나치당의 기소로 다하우(Dachau) 집단 강제 수용소에 감금되었었다. 매일 비참하게 벌어지는 죽음들을 목격하며 기도와 눈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던 중 극적으로 살아남게 되었다. 요하네스는 자신의 여생을 폐허가 된 피터스버그 예배당 복원과 영성소 설립에 쏟았고 피맺힌 역사의 과오에 시달리는 주민들의 정신적, 심리적 치유에 전념했다한다. 산뜻한 현대식으로 지어진 영성소에서 지내던 삼일 동안 영성프로그램 하나인 "독일 찬송과 민속 무용"에 참석하여 그리스도인들의 영성이 그 지방 입지 여건과 어우러져 독특하게 개발됨을 실감했다. 또한 12 년 동안 약 이십만 명을 수용하여 43,000 명이 희생당한 인근의 다하우 수용소도 돌아보았다. 옛 그대로의 모습인 철조망 담과 즐비한 막사들, 야외 노동장과 독 가스실들에 감도는 어두움은 방문자들을 몸서리치게 했다.

예수공동체를 찾아 나선 발길이 이미 독일의 뉘른베르크까지 이른 까닭에 기차로 약 네 시간 거리에 떨어진 오스트리아 비엔나를 들려 중심가의 교회들과 문화의 유적지를 돌아본 후 빠리로 돌아왔다. 마침 부시 대통령이 불란서 방문 중이었던 때라 수많은 살생 자들을 내는 그 전쟁의 장본인 미국이 빠리 장들에게 얼마나 지탄을 받는 지 실감 할 수 있었다. 파리 주변의 개신교 공동체들은 일반 회중 교회들로서 그 중 두 곳을 방문하였다. 한 곳은 센 강 변의 200 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미국인 교회(The American Church in Paris)였고 또한 곳은 북부의 작은 신도시 Rueil-Malmaison 교회였다. 대부분의 천주교 성당은 평일에도 예배당 문을 열어 놓아 방문객들이 원하기만 하면 번잡한 세상을 피해 내부로 들어와 성경을 읽고 기도나 침묵을 통해 지친 심령의 재충전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위의 두 곳은 예배당의 문이 잠겨있어 그저 찾아온 방문객의 출입은 금지되어있었다. 빠리를 떠나기 전 삼박 사일은 변두리의 한인 교민들의 집에 묵으며 그들의 삶을 접할 수 있었다. 타국인에 대하여 더욱 배타적이고 합법적인 노동의 기회가 드문 정치 사회구조 때문에 미국의 여건과는 다르게 유학생들과 이민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작은 이민 교회 단위로 교제가 이루어졌다.

지난 약 사십 일 동안 불란서, 스위스, 이탈리아, 독일 그리고 오스트리아 등 5 개국과 파리, 마르세이유, 취리히, 바젤, 플로렌스, 뉘른베르크 및 비엔나 등의 대도시 등을 중심으로 둘러보았다. 천년 이상의 전통 속에 복음의 소식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양한 모습으로 들어난 여러 대도시를 돌아보며 현 시대를 적나라하게 가르쳐 준 자들은 다름 아닌 거리에서 혹은 열차 안에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도심지 안에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자들인데 다음 세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겠다. 겉으로 잘 차려 입고 언어 소통에 지장이 없는 본토의 현대인들이다. 그들의 얼굴엔 핏기가 없고 담배와 술 혹은 약기운에 의지하여 생의 진정한 의미를 찾지 못하고 무감각한 기계의 부속처럼 살아가고 있었다. 둘째는 자기 나라를 떠나 이방나라에 와 사는 유색 인종 들이다. 언어 소통에 문제가 있지만 그보다 더 합법적인 일자리를 찾지 못해 각종 허드렛일에 생계를 유지하며 사는데 우리 한인 교포를 포함한 아프리카나 중동에서 온 자들 혹은 동남아 난민들이다. 세 번째는 가진 것도 잘 곳 도 없는 거리의 무숙자들이다. 그들의 대부분은 제 정신이 아니었고 무언가에 분노하여 길거리에서 소리를 질러대며 방황하고 있었다. 현대인들은 부서진 가정으로 소외되고 정서 불안 및 우울증으로 인한 정신 질환 등으로 시달리는 그들의 모습 속에 진통을 겪는 유럽의 모습을 발견 할 수 있었다.

지난 6 월 말 여행을 마치고 마이라 하우스로 무사히 돌아 온 후 그동안 객지로 떠난 사이 세계 이곳저곳에서 벌어진 끔찍한 참사들은 여전히 지속됨을 더 자세히 접하며 마음이 아팠다. 수단의 종족 말살, 러시아의 테러범들에 의한 인질극 및 살인들, 이스라엘 과 팔레스타인의 멈추지 않는 폭력과 충돌 그리고 전쟁의 끝이 묘연한 이라크 사태 등이었다. 지난 이 천년 동안 무모한 생명을 앗아갔던 살생 극은 살기 편하고 물질 풍요의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이 시대에 요구되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현대인들은 위에 나열된 끔찍한 전쟁들 이외에 개인주의, 물질주의, 세속주의로 시달린다. 그들의 심령은 점점 메마르고 심신은 차차 병들어 가기 때문에 생명력을 공급받는 영성 중심의 예수 생활 공동체가 어느 때 보다 절실히지고 있다. 세계 곳곳에는 암담한 시대에 대처하여 세워진 유명한 예수 공동체가 많다. 특히 보수적 복음주의에 입각하여 수백 가족이 마을 형성해 사는 영국의 브르더호프 공동체, 개신교에서도 재매들의 역할을 활성화시키고 수도원 전통을 이루게 독일의 기독교 마리아 자매회, 성령의 능력과 선교에 집중하는 미국의 베다니 및 백인과 흑인이 함께 사는 코이노이아 공동체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옮긴 큰사랑을 입은 자들이다. 그리스도인의 영성이란 단순 소박한 생활양식과 습관적인 기도와 묵상을 통해 예수님의 큰 사랑을 재삼 깨닫고 그 사랑을 목말라하고 배고파하고 병들어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실천함을 의미한다. 영성 생활 공동체는 바로 가장 기본적인 훈련장으로서 서로 다른 사람들 간에 화해와 일치를 실천하고 파괴되어지는 자연 생태계에 대처하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이다. 내가 방문한 예수 공동체들 중 시토 수도원들을 제외한 떼제 공동체, 바질의 “평화의 정원”, 투스카니의 Fioli 농장, 피터스버그 영성센터들은 지난 반세기 동안에 이루어진 가장 최근의 생활 공동체들이다. 각 공동체들은 바로 자기들의 삶 속에 자기가 받은 큰 사랑을 매 순간 확인하고 나약해지고 병들고 마는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큰 사랑을 나누고 살고 있었다.

이번 영성공동체 답사를 하고 돌아온 후 맨 먼저 손을 본 곳이 마이라 하우스의 예배 공간이다. 그동안 예배 이외에도 다목적용도로 쓰이게 했던 예배공간을 기도와 묵상 중심의 처소로 바꾸었다. 나열해 놓았던 의자들을 치우고 카펫을 깔고 나무 기도의자나 방석들을 준비했다. 빨간 벽돌을 얻어다가 조형을 이루고 크고 작은 촛불들로 그 안을 채우고 벽에는 성화들을 걸고 촛불로 은은한 조명을 마련했다. 아침저녁의 기도는 말씀듣기, 간단한 찬양 그리고 침묵으로 이루어졌다. 예배당 남쪽에는 도자기 와 목공을 위한 작업장을 설치하고 화분과 각종 용기 그리고 나무 십자가 및 기도의자의 제작을 시도했다. 매일 기도 시간에 우리가 받고 확인한 예수님의 큰 사랑을 주말에 포모나 시에 나가 무숙자들에게 온정을 쏟으며 그들을 위한 예수생활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꿈을 펼쳐간다. 연합 감리교의 ‘전 지구촌 사역 임원회 장학재단이 지원이 없었더라면 이 값진 여행은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곳 곳 에서 처음 만난 우리를 반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고 예수 공동체에 대하여 전문을 넓히도록 도와준 이들에게 다시 한 번 고마움이 앞선다. 또한 마이라 하우스에 남아 과일나무와 꽃들을 가꾸고 열 마리가 넘는 닭들을 키우며 시설관리를 잘 해 주었던 공동식구들의 돌봄에 큰 은혜를 입었다. 많은 독자 분들과 나의 체험을 나눌 수 있도록 기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9. 왜 우리는 공동체로 사는 가? (마이라 하우스)

추수 감사절 며칠 전, 월요일 아침예배는 그동안 공동체 안에서 드린 어느 예배 때보다 감격스러웠다. 도자기 가마에서 방금 꺼내 온 성찬식에 쓰일 포도주 잔 열두 점 주위에 전 식구들이 함께 둘러 앉아 예배를 드렸다. 각 토기들은 그 우아한 몸매에 우유 색, 황갈색, 적갈색, 청자색 등의 저마다 독특한 색조로 예배 실을 채웠다. 가지런히 놓인 도기 잔 하나 하나는 마치 자신이 세상의 수많은 토기 잔들 중 특별히 선별되어 성찬식에 쓰일 줄 아는 듯 상기되어 운기를 내었다. 뜨거운 가마온도에서 나온 그 몸체들은 예배실의 낮은 온도에 적응하느라 ‘찌릉,’ ‘찌릉,’ 소리를 내며 마치 살아 숨 쉬는 생명체처럼 예배에 동참하였다.

만년 가까이 전해 내려오며 인간의 생활을 발전시켰던 도예 문화는 유서 깊은 예수공동체들 삶속에서도 영성수련과 생계유지 수단으로 전해져왔다. 우리 공동체에서도 그 소원을 한 지 두해가 지나서야 가마를 구비한 도자기 작업장이 갖추어졌다. 마침, 오래전부터 친분으로 지냈던 도예가 안 호순 선생님이 서울에서 오시게 되어 현장 실습을 통해 전반적인 도기 제조 과정을 배울 수 있었다.

모처럼 우리 공동체에 주어진 도예작업 기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문화전통에 쓰였던 성찬식 용기들의 특색도 조사하였다. 특히 예수님이 직접 쓰셨다는 성배(Holy Grail)에 담긴 심오한 뜻을 깨칠 수 있었다. 예수께서 잡혀가시던 전날 밤, 잠시 후면 자신을 버리고 흩어질 제자들과 자기를 팔아넘길 유다까지 포함한 열두 제자들과 함께 식사 하신 후 들려 올렸던 그 잔,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의 옆구리가 창에 찔렸을 때 그 피를 담았다는 잔, 유대 고위층의 한 사람 아리마데 요셉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이유로 투옥되었을 때 43년 동안이나 그에게 물과 양식을 공급했다는 잔, 그가 옥중에서 풀려난 후 행해지는 성찬식 때마다 치유의 기적을 일으켰다는 잔, 그가 영국으로 가져온 후 긴 세월동안 행적이 묘연했던 그 잔, 중세 때 아서왕의 꿈에 나타난 후 청렴결백한 기사들의 눈에만 발견되었던 그 잔은 이제 더 이상 이 지구 땅에서는 찾을 수 없는 것일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면 대부분 그 옛적부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행해진 음식 나눔이 전해 내려온다. 예수님의 삶, 죽음 그리고 부활을 기념하는 성찬식은 진리와 공의 그리고 아름다움으로 새로 꽃피울 그리스도의 문화를 함축한다. 생명의 떡 들어 올려 축사를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는 그 식탁 위에 생명체의 근원을 알리는 우주의 섭리가 들어난다. 그리스도의 피로 채운 축복의 잔에 참여할 때 인간성 결핍, 가정 붕괴, 환경 폐허의 암울한 현 시대에서 새로 도래할 밝은 하나님 나라에 초대된다. 특별히 우리 공동체 식구들의 손에 의해 하찮은 진흙 덩어리가 빚어지고 섭씨 천도가 넘는 고온의 가마에서 구어 져 나온 그 성찬식 잔을 통해 온 식구가 모여 나누어 마실 때 뜨거운 감격이 있었다.

한 줌의 진흙 덩어리를 물레에 올려 중심 잡아 올리기, 빈 모양 만들기, 다듬기, 유약 칠, 초벌 및 재벌구이 등을 거치고 여러 사람의 손끝의 정성이 합해져야 그 아름다운 용기로 완성되어짐을 재확인하며 우리가 공동체로 사는 이유를 새삼 숙고해보는 기회가 되었다.

왜 우리는 공동체로 사는가?

우리가 공동체로 사는 이유는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공동체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릇임을 깨달음이고, 둘째는 공동체가 새 언약의 징표임을 확신함이고, 셋째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더 큰일을 위한 도구로 쓰이고자하는 소망에 기인한다.

첫째, 공동체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릇임을 깨달음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의 삶으로 부르셨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음을 깨닫고 그 만드신 분의 뜻에 따라 합당하게 살려는 결단으로 이루어졌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주의 손이 우리를 지으셨다(이사야 64:8)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지나온 삶을 청산하는 결단에 그 첫 동기를 찾을 수 있다. 아내와 간난 두 아이를 데리고 대학원 유학으로 온 지 몇 년이 지나며 일터가 생기고 수입이 일정해지며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었다. 나는 건축가로 아내는 약사로 다민족이 모여 사는 이 나라에 뭔가 값있는 일을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기대에 부풀어 15년을 열심히 살아왔다.

이민 첫 세대들이 겪게 되는 치열한 생존 경쟁의 소용돌이를 지나 안정세에 접어들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뜻과는 거리가 멀게 더 높은 야망, 더 갖고 싶은 소유 욕, 더 영향력을 끼치는 지배 욕 등으로 온갖 갈등을 겪어야 했다. 해가 감에 따라 부부사이에 점점 마찰이 심해가고 아이들과 깊이 있는 대화조차 할 시간도 마음의 여유도 없었다. 철저히 미국화 되가는 그들과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았고 부부사이드 부자사이드 점점 벌어져가기 시작했다. 우리가정은 철저히 개인화된 이 사회의 거미줄 같은 체제 망에 묶인 노예가 되어버린 것이다. 매일 생존을 위해 시간, 돈, 노력을 쏟음에 점점 몸은 지치고 마음은 쇠약 해져갔다. 우리 안에는 더 큰 의심이 쌓이고 조급한 성미로 인해 우리 가정이 얼마 못가 무너져 내릴 것을 예측하기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우리 부부는 죽음으로 향하는 사향 길에서 진정으로 살길을 찾고자 방황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쏟아 넣어도 후회 없는 그런 삶을 찾고 있었다. 그때 방문한 집이 Minnesota주 St. Joseph 에 소재한 조그만 공동체였다. 약 5세기경 아일랜드에서 불우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거처를 제공했던 믿음의 여인, St. Brigid의 이름을 가진 집에서 지낸 사흘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꾸게 했다. 그 집은 겉으로 보아기는 시골의 어느 개인 가정집과 다를 바가 없었지만 서로 다른 배경의 두세 명이 모여 사는 공동체의 일과는 근본적으로 달랐다. 아침 식사 전 평온함이 깃들 듯 촛불 앞에서 시편서의 간단한 찬송을 하고 복음서의 말씀으로 모였다. 그 순서 사이사이에 들어간 침묵은 전에 경험하지 못한 텅 빈 속에 가득한 충만함이었다.

시리얼과 간단한 빵 조각으로 조반을 들고 그 집 주위 동네를 둘러보았다. 도로의 한 쪽에 호숫가를 끼고 다른 한 쪽으로 돌단과 석탑 그리고 거대한 돌기둥이 정렬된 묘지 터를 지나 대학 캠퍼스에 들어섰다. 건축가 마르셀 브로이어가 설계한 거대한 예배당의 종탑은 함께 어울려 사는 별들의 공동체 형제 육각형 별집을 본 따 수십 개의 육각 형틀로 전면이 다 채워졌다. 우연히 발길을 멈춘 곳이 각양각색의 암석들로 불규칙으로 배열된 연못이었다. 울퉁불퉁 모가 난 돌담과 제라니움 꽃들, 경계 없이 드리워진 잔디와 이끼들이 물속에 드리워져 있었고 그 안에 놀고 있는 금붕어들, 수면에 물벌레들 그 위를 맴도는 잠자리는 수십 가지의 생명체가 함께 공존하고 있었다.

그곳에는 특별히 고기 따로 물벌레 따로 꽃나무 따로 구획되 사는 것이 아니었다. 그 어우러져 사는 물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그 안에 선명하게 보이는 또 하나의 존재가 있었다. 뭉게구름사이로 보이는 파란 하늘이었다. 푸른 하늘까지 담고 있는 고요한 연못은 지금껏 우리가정이 몸담고 살아온 삶의 현장과 너무나 대비가 되는 삶의 본보기였다. St. Brigid 집, 육각형의 별집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생명체가 함께 어울려 평화롭게 사는 연못 그 세 가지를 통해 예수님이 제시하는 새로운 공동체 삶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하나님에게로 비롯된 생명체들은 공동체적인 질서 속에서 살아가고 또 그렇게 더불어 살아야한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다.

집에 돌아온 후 우리의 삶을 재정비하며 그 첫 번째로 가족시간을 뺏고 소비주의, 쾌락주의를 조장시키는 TV를 제거하였다. TV를 제거한 장안에 성경책과 촛대를 넣어두었다. 그 다음으로

저녁 식사 후 Compline 시간을 두어 가족이 하나로 모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 Compline은 라틴어로 마무리를 짓는다는 뜻이다. 하루를 마감하며 시편을 읽고 하루에 지냈던 가장 감사한 일과 가장 염려했던 일을 나누기 시작했다. 마무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감을 했다. 그리고 한편으론 우리를 얹어매던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하기 시작했다. 아내가 운영하던 약국을 처분하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생계의 보장을 해주었던 그 사업체를 내놓는 일이란 마치 대책 없이 낭떠러지로 내 달리는 그런 심정이었다. 소지하던 핸드폰들도 없애고 매달 지불해야하는 부채 종목들을 하나하나 줄여나가며 지나온 삶을 정리해 나갔다.

이 나라에 정착한지 15년이 지나서야 우리의 주성분이 흙임을 깨닫고 도공의 손에 의해 빚어져야함을 알아차렸다. 마치 하찮은 흙덩어리가 도공의 뜻에 맞게 재 중심 잡히고 다듬고 또 다듬어진 후 가마솥을 거쳐 나오듯 우리가정을 험난한 타향살이동안 모든 공정을 거쳐 나오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족만의 삶에서 공동체의 식구들과 더불어 살게 하신 그분이 하나님이다.

둘째, 공동체가 새 언약의 징표임을 확신함이다.

사람들은 저마다 사실은 공동체의 형태로 모여 산다. 혈연 공동체, 지연 공동체, 취미 공동체, 학원 공동체등 여러 모양으로 사람들이 어울려 산다. 하지만 세상의 많은 공동체와는 달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공동체의 삶은 믿는 자들로 하여금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한다고 제시하는 새 언약의 징표이다. “너희가 내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나니 내가 아버지께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너희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한 6:48, 56-57) 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새로운 종교를 창시 했다고보다는 새로운 생활 공동체의 모습을 가르쳐 주셨다. 새 언약의 징표가 되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각종지혜를 그 삶을 통해 들어 내야할 것이다.

공동체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옛 개인주의 삶의 틀을 허물어 버리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또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자들과 함께 공동체로 살 수 있는 합당한 환경이 조성되어야만 한다. 옛 삶을 벗어나는 시도를 한지 얼마 후 산동네 가까이 있는 허름한 집을 발견하였다. 백인부유층과 타민족 의료분야나 기타 기술 전문직 혹은 사업체를 소유한 부유가정이 모여 사는 동네에 믿기지 않을 정도로 허술한 집이 나온 것이다. 한 에이커 대지에 여기저기 두서없이 서있는 나무들은 제대로 물을 먹지 못해 말라 비틀어져 있었고 누런 잡초들과 제멋대로 생긴 자갈들이 온대지를 덮고 있었다.

집이 상당기간 비어있어 사람의 손이 가지 않았기에 버려진 집처럼 낡았고 오히려 다람쥐 들쥐, 집나간 고양이들이 그들의 보금자리를 꾸미고 있었다. 부서진 액자들 그리고 자리 잃은 방충망 창들이 자리를 벗어나 여기저기 뒹굴고 있었다. 차고로 연결된 아스팔트길 여기저기 깨어진 사이로 나오는 잡초들은 차량의 자취가 오래된 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 집을 구입키로 하고 갖고 있는 모든 자본을 모았다. 우리식구만 사는 곳이 아니라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거쳐 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다. 기존에 서 있는 집을 완전히 제거하여 개축을 하게 되니 돈을 모아도 부족했다. 사업체를 처분한 돈, 당시 살고 있던 집 처분한 돈, 우리부부가 들어 논 퇴직연금, 심지어는 아이들 대학 공부에 쓸 적금, 그리고 얼마 있던 현금마저도 몽땅 쏟아 넣고 말았다.

이미 자리를 잡고 우뚝 서있는 낡은 옛 집을 해체 해나가는 그 심정은 우리 가정을 울가미 지은 그 형틀 하나하나를 제거하는 통쾌감과 일치했다. 햇빛을 가리고 비를 제대로 막지 못하는 지붕을 걷어내고 제멋대로 이리 저리 구획한 벽들을 허물고 창문과 문짝을 뜯어내어 사방을 열었을 때 숨통이 트이는 듯했다. 다 부수어 버린 후 다시금 처음부터 이집이 서있는 입지조건에 맞게 자연 경사를 살리고 햇살의 방향과 바람의 운행을 고려하는 등 그 대지에 맞는 가장 적합한 요소들을

찾아 서로 엮어 공동체의 삶에 어우러지도록 설계 작업에 착수했다.

직사각형 대지의 긴 쪽이 산을 향하도록 집의 본체를 세우고 대청마루에서 산의 정경이 한 눈에 들어오게 했다. 안채와 차고 두 동으로 나누어졌던 것을 하나로 이어 그 맥이 통하는 곳을 중앙홀로 두어 햇빛을 흠뻑 받는 실내 온실을 두었다. 남쪽엔 각방에서 직접 남쪽 정원으로 나올 수 있도록 미닫이 창문들을 두고 그 유리면을 통해 최대한 햇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여름에는 커튼으로 햇빛을 막고 겨울철에는 커튼을 걷어 그 햇빛의 열을 받아 따뜻한 실내 온도를 유지시켰다. 내부에 배치된 열두 개의 방과 서재 예배 실 부엌, 가족 실 등의 보온은 중앙통제장치를 피하고 햇빛, 대기흐름 그리고 두꺼운 벽과 이중 유리등의 열효율에 의존하도록 하였다.

이 집은 이 미국에 행복을 찾아온 사람들이 서로 태어난 곳이 다르고 자라온 배경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함께 조화롭게 살도록 참다운 집의 의미를 찾도록 옥외와 실내의 공간구성이 이루어졌다. 함께 살며 소모되는 여러 가지 자원도 줄이고 경비도 줄인다. 음식 찌꺼기는 모아 퇴비를 만들고 가능하면 재사용할 수 있도록 재생시킬 수 있는 것들은 한 쪽에 따로 모은다. 옥조의 샤워 물도 재생시켜 정원의 식수로 쓰도록 장치되고 빨래는 널어 말리도록 야외 빨랫줄이 서있다. 현대문명이 가르쳐준 대로 소비위주 중앙통제방법에서 벗어나 무공해 자연 친화방법으로 난방과 온방을 했다. 태양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그 열로 물을 데워 재생 못하는 화학 연료소비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고안했다.

안마당에 우뚝 서 있는 전봇대와 그 전선들을 제거하여 주 도로 반대편의 전봇대에서 전기를 끌어들이니 도로의 중앙부를 갈라 그 밑으로 진입하게 하도록 전선관을 묻었다. 새 동네의 마스터플랜이 적용되기 이전에 지어졌으므로 정화조에 오물이 모이는 재래식 설비를 파내고 주 도로 밑 오물 하수관에 연결시키는 작업은 그 규모나 소요되는 경비 면에서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했던 작업이다. 허허벌판 돌밭의 돌을 걷어내어 돌담과 돌기둥을 세우는데 쓰고 대지 한가운데를 파내어 중앙 연못을 만들어 생명의 샘이라 불렀다. 그 타원형 연못을 중심으로 과일밭, 채소밭, 약초밭을 구획하고 그사이 사이는 사시사철 꽃향기가 그윽하도록 이 거주지역에 적합한 야생 꽃들을 심었다.

과일나무들이 계단식으로 둘러서도록 사과, 감, 배, 무화과, 복숭아, 살구, 대추, 자두, 아보카도, 바나나 등 사시사철 꽃이 번가라 피어 있게 하고 때에 따라 열매를 수확하도록 하였다. 대지를 경계하는 곳에 원래부터 세워진 메탈 담장을 그대로 두고 그 경계를 따라 포도나무를 심고 그 밖에는 사시사철 푸른 오렌지, 귤, 레몬 등을 심어 그 무성한 잎들과 짙은 향기를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 바로 도로 변에는 높게 치솟을 삼목으로 줄을 세워 세찬 산바람을 막도록 하였다. 서쪽으로 진입하는 대문 옆에 자연퇴비를 만들 수 있는 헛간을 설치하고 그 옆으로 닭들이 알을 치는 닭장이 있다. 시의 도시 계획담당자와 건축담당자가 통제하는 과정 때문 예상보다 일 년이 넘게 걸렸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재정결핍과 공사를 맡은 일꾼들이 더 이상 일을 진전시키지 않았던 온갖 위기를 거쳐 가까스로 집이 세워졌다. 시당국에서는 이집이 생태환경의 원리를 잘 적용하고 지역 특색을 살린 디자인으로 튼튼히 지은 집으로 선정하여 수상을 해주었다. 모든 것을 다 내놓아 빈털털이가 된 우리가정은 땅을 일구며 주안에 갇힌 자들 되어 사는 기쁨을 조금씩 맛보기 시작했다. 새 언약의 징표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각종지혜를 터득하듯이 우리 식구들은 예전에 겪지 못하던 새로운 지혜를 얻게 되었다. 가나안 땅에 이주한 자들처럼 우리는 새로운 삶에서 정해진 기도

일과에 따라 살아가니 이전의 나약해진 심신과 메말라 버린 심령이 점점 회복되어갔다.

셋째, 공동체가 하나님의 더 큰일을 위한 도구로 쓰이고자하는 소망에 기인한다.

우리가 공동체로 사는 이유는 함께 살도록 허락하신 공동체를 통하여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 쓰이고자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일도 하리니” (요한 14: 12)의 말씀대로 각 공동체들은 하나님께 쓰여 큰일을 감당하도록 선택되었다. 도기 잔 하나하나는 흙의 원성분에 따라, 도예공의 손길의 감촉에 따라, 물레가 돌려질 때의 기분에 따라, 물을 얼마나 섞느냐, 어떤 유약을 얼마나 입히느냐에 따라, 어떤 가마로 얼마동안 어디에 놓여 구어 쪼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예수 공동체로 모인 그곳은 어디든 보배인 주의 영을 지니고 저마다 다른 특성을 지닌 질그릇(고린도 후서 4:7)으로 볼 수 있다.

세상에도 현대인의 삶을 안락하고 편리하고 건강하게 꾸미려는 첨단 문화가 범람한다. Star Bucks 문화, Fitness 문화, Entertainment 문화 등 바쁘고 지친 현대인들에게 집과 직장사이에 제삼의 안식처를 자처하는 곳들이 점점 더 활기차게 범람한다. 이 미국사회에서 장려하는 주거공간은 개인주의, 소비주의, 유흥주의 문화 등을 조장한다. 그렇기에 이 집을 설계할 때 수도원전통에 내려오는 건축원리를 택했다.

건물 자체를 살아있는 생명체로 간주하여 공간 배열을 몸(Corpus), 영(Spiritus), 마음(Animus) 등으로 구획하고 그 합일로 이루어지는 생명력이 식구들의 일상의 삶에 영향을 주도록 설계했다. 공동체의 집 이름은 회랍원어의 “풍성함”이란 뜻을 가진 평범한 사람의 이름 “MYRA”로 정하여 간판을 달았다. 마이라는 바로 이 사회구조가 만들어 놓은 부조리체계에 휩쓸려 죄 의식과 갈등 속에 살지만 절망치 않는 이들을 가리킨다. 고질적인 굴레를 벗어나길 소원하며 매 순간 새로운 삶으로 옮겨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상징하는 이름이다.

이민 생활 속에 접한 서양 문화는 혈연, 지연, 학벌, 언어별, 세대별 등 끊임없이 선 긋는 일에 분주하다. 하지만 공동체의 삶에 부름 받은 우리는 신령한 아버지의 뜻에 부름 받아 모인 자들이 한 형제 자매되어 사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그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동 식사를 나눌 때, 함께 모여 묵상기도 할 때, 함께 나가 땀을 흘려 밭일을 할 때 공동체로 부름 받은 기쁨을 체험하게 된다. 삼년 반 전 아내와 두 아이의 우리가족 이외에 남미페루에서 선교사일을 마치고 돌아온 로버트라는 백인 젊은이와 조출하게 시작된 작은 공동체가 아이들이 집을 떠나 간 요즈음 서로 인종이 다른 상주 식구들, 주중에 머무는 정기적 식구들 그리고 우리 부부를 포함한 총 8명의 공동체로 성장했다.

공동체 생활을 해보며 행복은 바로 나눔에 있음을 터득했다. 이집을 찾아드는 사람들이 부어주고 간 값진 지혜 속에서 얻은 것이다. 행복은 바로 돌봄에도 있었다. 자갈밭을 일구어 상추, 고추, 배추, 무우 등을 걷어 들고 호박과 감자 양파를 거두어 나눌 때 세상이 주는 어떤 기쁨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다. 바로 땅을 일구며 파릇파릇 솟아나는 생명체들의 커가는 모습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친다. 그 땅을 고르고 채로 돌들을 쳐낼 때 마치 내 자신의 거친 모습이 다듬어져 기쁨진 옥토로 변하는 과정 그 순간순간이 행복이다. 하지만 여전히 옛날로 돌아가야만 하는 유혹에 사로잡힐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그 하나는 살아보지 않은 삶을 택했을 때 오는 두려움의 엄습이다. 경험 없이 덜컥 과일밭 채소밭 동산 지기가 되니 심은 것을 파내어 다시 옮기고 또 옮기는 시행착오에 쏟는 노동은 몸에 이로운 쓴 약과 같다.

마이라 하우스 공동체 식구들은 St. Brigid 처럼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아침 기도로 다함께 모인다, 성경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하루의 계획과 소망을 나눈다. 물론 각자 다른 하루 일과가 있지만 틈나는 대로 정원에 나가 과일나무를 손보고 꽃나무를 손본다. 채소밭을 가꾸고 닭들도

돌본다. 이웃을 가장 잘 아는 방법은 함께 살아보는 것이다. 남들과 더불어 산다는 것은 교과서의 공부로 되지 않고 직장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므로 이 유기적인 삶의 공간의 체험을 통해 공동체 삶의 지혜를 배운다. 가끔은 그룹 등이 찾아와 모임도 같고 영성수련을 위한 시설로도 이용되고 있다. 한동안은 가까운 대학교 기숙사에 거주하는 다민족 학생들이 주일 날 방문하여 그들의 안식처로 이용되기도 했다.

지난 삼년 반 공동체가 주축으로 벌인 행사도 상당하다. ‘예수 십자가 공동체,’ ‘새 시대 청지기가정,’ ‘푸른 영성의 삶,’ 등의 소그룹 영성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왔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새로 태어날 생명체를 품고 출산의 진통을 겪는 어머니를 연상하며 Bearing Cross라는 나무 십자가들도 만들어 나누었다. 조각가 후배를 통해 창세기의 말씀에 나온 일곱 개의 이미지를 담은 천지창조 조각품들도 나왔다. 홀로 사는 이웃들을 초대해 함께하는 수요일 저녁식사, 주말에 포모나 시에 나가 무숙자들과 나누는 다과와 운동회, 매달 Community Garden 의 날을 정해 식구들 이외에 방문객들에게도 밭일의 기회가 주어지는 정기적인 활동이 있다. 분기별로 가졌던 특별 영성 강연회, 연 중 행사로 ‘유럽 예수공동체 탐방’ 등으로 급변하는 이 시대에 대처하는 그리스도 문화를 꽃피우는데 앞서왔다.

그동안 마이라 하우스 공동체를 이끌어주신 분들의 희생어린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그분들의 변함없는 신뢰, 정성어린 헌금, 능력의 기도가 없었다면 오늘처럼 하나님의 귀히 쓰시는 도구로 클 수 없었을 것이다. 그분들의 기대와 지원의 보답으로 이 공동체가 앞으로 더 하나님의 큰일을 위해 성장해야 하겠다. 앞으로 나갈 공동체의 방향은 그동안 시행착오를 겪으며 쌓아온 산 경험을 바탕으로 청사진을 그려본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형성된 공동체들의 꿈은 믿음의 예언자들이 가졌던 꿈들과 다를 바 없다. 광야의 메마른 땅에 물이 솟고 사막에 시내가 흐르고 백합화 꽃이 무성하고 눈먼 자가 눈이 밝히고 못 들은 자의 귀가 열리며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놀고 말 못하는 자가 노래 부를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위해 공동체로 부름 받았으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를 꽃 피어야 할 책임이 있다.

우리 공동체는 지난 삼년 반 동안 여러 연령 별 그룹들을 다양하게 접할 수 있었다. 그 많은 그룹들 가운데 특별히 현대 가정의 붕괴로 인해 상처받고 집 떠나 살며 자기 은사나 전공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젊은이들에게 쏟았던 우리 사역에 큰 결실이 있었다. 마이라 하우스는 바로 이러한 젊은이들을 위한 공동체로 그들에게 삶의 거처를 마련해 주는데 그 소명을 다해야 하겠다. 한국을 포함한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열두 명의 다민족 젊은이들을 초대해 그들을 믿음의 지도자로 키우는 작업이다. 우리는 가족이나 모 교회를 떠난 믿음의 젊은이들이 이 공동체 삶을 통해 신앙의 뿌리를 찾고 직접 도심지에 나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기도와 개인 공부 및 그룹 공부 중 자기의 은사를 발견하여 세상을 밝게 하는 그리스도 문화를 창출해내는 공동체로 쓰이길 소원한다.

공동체가 시작된 지 삼년 반이 지난 후 성찬식 용기도 만들 수 있게 되었고 특히 도기 잔의 그 아름다운 형태를 통해 우리가 이루고 사는 예수 공동체의 본래 의미를 새길 수 있었다. 둥근 원을 그리며 허공을 향해 넉넉하게 깊이 파인 볼이 새 언약의 징표가 되는 예수님의 피를 담을 수 있듯이 예수 공동체가 빈 그릇이 되어 하나님의 각종지혜로 풍성하게 채워져야 하겠다. 두 손으로 감쌀 수 있는 손잡이 부분은 예수 공동체가 한쪽엔 예수님의 손에 다른 한쪽엔 성령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성찬식 잔이 바닥에 차분히 놓일 수 있는 원형 기반을 갖듯이 예수 공동체는 자신들의 이득을 구하지 않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며 그들의 유익을 구하고 그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쓰여 질 때 바로 바울 사도의 고백(고린도후서 6:8-9)이 우리의 고백이 되리라.

우리의 질 그릇 속에 담긴 보배로 인해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않으며
거꾸러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으며
가식하는 자들 같으나 신실하고
이름 없는 자들 같으나 유명한 자 들이요
근심하는 자들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들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 것도 없는 자들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들이라.